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인터뷰**



하나님과 인터뷰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대구?"

"예, 시간이 허락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시간은 영원이니라... 뭘 묻고 싶으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나서는, 잃어 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 처럼 살다가는,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 본 존재 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들 이란다.

하나님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여쭙었습니다.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줄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서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 스스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들려주실 말씀은요?"

내가 겸손하게 여쭙자

하나님은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추억생각하기▶ TV 외화 초원의 집

통나무 집, 마차, 찰스의 뿔빵, 얇은 언덕을 치령대는 치마로 귀엽게 뛰어 내달리는 아이들.... 언덕 위 통나무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찰스의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판 전원일기라고나 할까요.

동네에 몇몇 집만 TV가 있던 시대였지만 "유쾌한 청백전" "웃으면 복이와요"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꽤 오랜 기간 사랑 받은 따뜻한 드라마였습니다.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 딸이 4명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5권 23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6월8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당신에게는



당신에게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서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뒤에 오는, 힘이 약한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께 가십시오.

당신에게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서 너무 크게 사랑하지 마세요. 뒤에 오는,

작은 사랑을 가진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께 사랑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서 너무 높아지지 마세요. 뒤에 오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께 올라가십시오.

당신에게는 꿈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서 꿈을 너무 빨리 이루지 마세요. 뒤에 오는, 아직도 꿈을 품고 애태우고 있는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께 꿈을 이루십시오.

당신에게는 자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서 자유를 너무 즐기지 마세요. 뒤에 오는, 아직도 몸이 구속 당하고 마음이 얽매인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께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에게는 용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앞서서 용기를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뒤에 오는, 아직도 힘들어하며 망설이고 있는 이들이 많으니 기다렸다 함께 용기를 펼치십시오.

엄마가 딸에게
통화가 끝나도
네가 먼저 전화를 끊지 마라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 필요 없잖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에 가서
좋은 설교를 들어라
마음도
양식을 먹어야 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8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 (시편 4)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58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박일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0:7-1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예수님은 누구신가(1) "나는 양의 문이다"'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42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세월의 흐름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1	노은숙	박정자	선교부	김경일, 김교섭
8	박일영	박태원	세월의 흐름	김반석, 김성국
15	이광희	박하림	이일원, 김혜경	김종건, 김중우
22	이규임	박혜련	유병민, 한상숙	김진근, 김현수
29	이재영	변민강	최원영, 이종란	민광호, 박병민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이사. 박혜련 집사 ☎ 476-1198 ☐ 42A Palliser Lane. Browns Bay
*이사. 정관영. 황경임 집사 ☎ 480-3131 ☐ 137 Chelsea View Dr. Chatswood
*유성희 집사(주소정정) ☎ 369-5503 ☐ 19 Carlton Grove Rd. Grafton
- 9기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이수자 명단 누락. 죄송합니다
*정종일. 이선애 집사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9일(월) 오후1시 본당.
*기도로 응답 받아야 할 것이 많은 외국생활. 참석 못하시더라도 기도 부탁을 하여 주세요(담당:정희자 권사)
- 남선교회 낚시대회: <일시> 14일(토) 11시 <장소>오마하 비치 (안내문 참조)
*낚시대 매고 겨울 바닷가로 떠나는 '남편들의 반란(?)'. 아내의 정성 깃든 도시락과 함께 작년에 많이 잡았던 곳으로 또 한번의 희망을 갖고 갑니다(부부동반 환영).
-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 <성경강해> 출애굽기
*저도 준비하면서 깨달아 갈 때면 기쁨을 넘어선 흥분이 있습니다. 올 해 안에 다 마칠 것 같습니다.
- 많이도 즐거워했던 작년 6월의 월드컵! 어느새 1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Tea Time을 가지면서 그때의 Goal과 대~한민국 응원의 모습을 되짚어 봅니다. 지난 주에 가진 일본과의 하일라이트도 준비되었습니다
- 물물교환: 내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무료로 나누어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Hall에다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시인들▶

- 한 호 -
짚 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슬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아희야,
박주산채(薄酒山菜)ㄹ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한 움큼 쥐었다간 하늘 향해 뿌리는
소풍나온 아이들의 낙엽. 너털
웃음 웃는 할아버지의 수염 되어
손주 같은 아동들의 머리에 내려
앉습니다
요즘은 어디든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어 한번쯤은 낙엽위에 앉아
폼을 잡고 싶다가도 살기에 바쁜
자들을 두고 사치한 게으름처럼 느껴져
애써 고개 돌려 지나웁니다.